

다윗, 사색과 결단의 왕

* 6/25(금) 사무엘하 ⑥ 21–24장 / 시 60편

사울과 다윗 1–4장	다윗 5–24장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 1–4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 5장 여호와의 궤와 언약 6–8장 다윗과 므비보셋 9장 다윗의 죄, 하나님의 용서 10–12장 압살롬의 폭주, 다윗의 도피 13장–19:8	▶ 다윗의 귀환 19:9–21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윗, 예루살렘 귀환· 시므이 / 므비보셋 / 바르실래· 유다 사람 vs.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 세바, 반란· 삼 년 기근과 사울 가문, 처단 ▶ 다윗의 찬송, 유언 22장–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윗의 승전가 : 시 18편 ▶ 다윗의 용사들 23: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사의 전당 37인 헌액 ▶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보응 2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근 7년 / 도피 3달 / 전염병 3일· 전염병, 칠만 명 사망

Before 출치며 읽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삼 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이 드문 현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레 26:26, 신 28:38–40, 42).

• 사색과 결단 I : 아들을 잃어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울이 맺은 열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전에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수 9:15).
이 언약을 깨고,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21:1).

사울 일가 일곱 명의 살생명부를 넘겨줍니다.

사울의 아들 두 명과 그의 외손자 다섯 명이 포함됩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예외입니다. 그는 <벗>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언약을 깨뜨려 후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통성경 길라잡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사울의 죄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리스바는
일곱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을 아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사울 가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후에야 기근이 끝납니다(21:11–14).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 사색과 결단Ⅱ : 인구를 조사한 왕의 결정으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 사탄의 꾀가 만든 ‘다윗의 죄’입니다(24:1, 대상 21:1). 출애굽 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출 30:12, 민 1:2).

인구조사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다윗의 수 세기는,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손을 꼽아 백성의 수를 셹니다. ‘숫자’가 왕의 업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 또한 아셨습니다(삼상 16:7).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와 ‘아흔아홉’의 무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눅 15:7).

사람의 구원은 혓됩니다. 여호와만이 그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시 60:11-12). 순간 망각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의 죄는 또 다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매섭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의 세 가지 옵션 중 택일(擇一)하라는 말씀입니다(24:11-13). 위험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입니다. 지난 삼 년간의 기근이 떠오릅니다.

둘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기는 <3개월 도피>입니다. 끔찍했던 왕자의 난(亂)이 떠오릅니다.

셋째는, ‘왕의 땅’에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모든 것은 <왕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세 재앙의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지만,

그 강도는 세집니다. 수를 센 죄로 말미암아 강도 센 재앙을 맞닥뜨립니다.

칠만 명의 백성을 잃게 됩니다(24:15).

• 사색과 결단Ⅲ : 주님이 세우신 왕의 열정으로…

다윗은 비록 범죄하는 왕이지만, 다시 회개하는 왕입니다.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왕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죄를 뉘우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곳은 천년 전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례입니다.

이후 이곳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대하 3:1).

‘왕’ 다윗은 도덕성과 품행에 구멍이 많았습니다.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자손’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막 10:47, 농 18:38).

그러나 그의 면모는 그만의 오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I am my own god.)’ 이라는데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색하고 결단하십시오. 순간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는다 말하며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